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엠바고 :

즉시 보도 가능

배포 : 2023년 12월 11일(월)

윤석열 대통령 부부, 네덜란드 동포 초청 간담회 참석

- 이번 방문을 통해 첨단기술, 원전, 신재생에너지 분야로 협력을 확장하고, 우리의 성장 잠재력 확충과 경제안보 증진에 기여 -
- 네덜란드 동포사회의 양국관계 가교 역할 평가 /
- 입양 동포와 차세대 동포의 정체성 함양을 위해서도 노력할 것 -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함께 오늘(현지시간 12/11, 월) 저녁 현지 동포 100여 명을 초청하여 만찬을 겸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네덜란드 전역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100여 명의 동포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대통령은 격려사를 통해 한국과 네덜란드 간의 교류 역사는 박연(본명 벨테브레)과 하멜의 제주도 표류로 시작됐으며, 6.25 전쟁 당시 네덜란드가 5천여 명의 장병을 파병하는 등 특별한 인연을 이어가며 연대와 우정을 다져왔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은 한국과 네덜란드가 자유, 인권, 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면서 경제 협력을 꾸준히 확대하여, 작년에는 양국 간 교역액이 역대 최대치인 160억 불을 기록했으며, 이번 국빈 방문을 통해 첨단기술, 원전, 신재생에너지 분야로 경제 협력의 지평을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대통령은 특히 반도체를 비롯한 미래 핵심기술의 선도 국가 중 하나인 네덜란드와의 협력은 우리의 성장 잠재력 확충과 경제안보 증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은 올해는 네덜란드한인회 설립 5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라고 하면서, 현재 약 1만 명에 가까운 규모로 성장한 네덜란드 동포 사회가 경제, 과학,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면서 양국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것을 높이 평가한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은 지난 6월 출범한 재외동포청이 모국과 동포사회를 긴밀히 연결하는 끈이 되고 동포들을 지원하는 든든한 울타리가 될 것이라고 하면서, 네덜란드의 입양 동포와 차세대 동포들이 고국과의 유대를 이어나가면서 한민족으로서의 뿌리를 잊지 않도록 하는 데에도 세심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날 참석 동포 대표로 환영사를 한 윤원 네덜란드 한인회장은 재외동포청의 출범으로 재외동포와 대한민국이 상생 발전하는 시대가 열렸다고 대통령께 감사를 표했고, 50여 년 전에 시작된 네덜란드 동포 사회가 오늘날에는 1만여 명에 달할 정도로 성장했다고 소개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높아진 위상과 네덜란드에서의 한국 열풍을 뿌듯하고 자랑스럽게 여긴다면서, 동포사회도 대한민국의 발전과 번영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박현주 암스테르담 한글학교 교장은 올해 설립 30주년을 맞은 암스테르담 한글학교가 로테르담, 아인트호벤 등 네덜란드 내 여타 도시의 한글학교와도 협력하면서 꾸준히 성장해 왔다고 하고, 그간 한인 학생들의 우리말 교육과 정체성 함양을 위해 한글학교에서 운영해온 교육 활동들을 소개했습니다.

김태연 김치연구소 대표는 유럽에서 K-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한식의 위상도 해가 다르게 높아지고 있다면서, 네덜란드, 헝가리 등 유럽 각지에서 한식 문화를 홍보한 경험을 소개했습니다. 김 대표는 그간 한식 홍보 노력에 있어 한식진흥원, 한국문화원, 주네덜란드대사관 등 정부기관과의 협업이 큰 도움이 됐다면서, 앞으로도 우리의 자랑스러운 한식 문화가 유럽 전역에 전파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이지원 네덜란드한국학생회(KSAN) 회장은 학생회 구성원들이 함께 협력하여 △네덜란드에서 한국을 알리는 공공외교 행사 △재외동포들의 단합을 위한 체육 대회 등을 개최한 경험을 소개했습니다. 또한 네덜란드에서 한국을 더욱 널리 알리고, 한-네덜란드 관계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인재로 성장해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오늘 간담회는 네덜란드 한인 입양인 출신 전자 바이올리니스트 미션 힐터만의 'Arirang', 'Palladio', 'Street Fighter' 연주를 끝으로 마무리됐으며, 대통령 부부는 공연 직후 미션 힐터만 씨와 사진 촬영을 함께하며 격려했습니다. <끝>